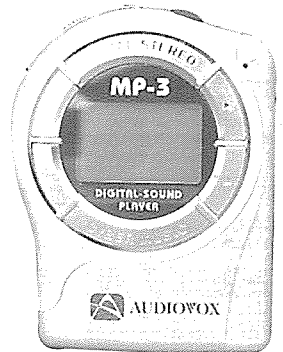


(주)텔리안AV시스템

MP3 플레이어로 세계시장에 돌풍



미니 카세트에 연결한 이어폰을 낀 고 거리를 활보하는 젊은이의 모습이 눈에 익숙해진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차세대 '인터넷 카세트'로 불리는 MP3 플레이어의 열풍이 지구촌을 강타하면서, 국내 업체들의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다. CD 플레이어에 이어 차세대 '인터넷 카세트'로 불리는 MP3 플레이어의 열풍이 지구촌을 강타하면서, 국내 업체들의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다. 그 가운데, 설립된 지 얼마 안된 벤처기업이 세계적인 전자·오디오 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고 양산을 시작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텔리안AV시스템' (대표 이상훈).

MP3 플레이어란 오디오용 데이터를 담은 일종의 컴퓨터 음악 압축 파일인 MP3 파일을 재생하는 차세대 디지털 오디오 기기를 말한다. 테이프나 CD 없이도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해 쉽게 내려받아 PC 상에서 즐길 수 있는 MP3 음악을 휴대하면서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전 세계 네티즌들에게 각광받으면서 세계적인 히트 상품으로 주목받았다. 또 반도체 메모리를 사용해 음악을 저장하기 때문에, 부피가 작으면서도 CD 수준의 음질을 자랑한다.



텔리안AV시스템의 MP3 플레이어는 이러한 장점에 '다양한 모델, 고성능 음질, 보안성'의 3박자가 두루 갖추어진 제품이다. 기본적으로 고급형 액정 표시장치(LCD)와 알루미늄 패넬을 채택함으로써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해외 시장에서 동일한 제품이 경쟁하면서 생기는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선호하는 디자인에 따라 모델들을 다양화시켰다.

고성능 음질의 인기 제품

한편으로는 내장형 플래시 메모리와 착탈식 멀티미디어 메모리 카드를 각각 채택한 제품과 단순기능, FM 수신 기능, 음성녹음 기능, 편집 기능, 반복 기능, PC를 통하지 않고 주파수만 맞춰주는 것만으로 음악을 재생시켜 주는 무선 다운 기능, 일종의 빼빼 기능

등을 선택적으로 갖춘 제품과 SD(Secure Digital)카드를 장착한 제품 등 다양한 모델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어들의 다양한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디자인에 따른 다양한 모델들과, 각각에 따라 여러 가지 기능을 다양하게 조합한 모델들의 개발이 가능한 것은 디자인 개발부터 모든 단계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오디오 기기로서 또 하나의 장점이 라면 프리앰프와 메인앰프 기능을 지닌 앰프소자 2개를 사용해, 고급 오디오와 같은 품질을 구현한 것이다. 또 기존 제품들에 비해 3배 이상 고출력이 가능해 보다 풍부한 음량을 제공한다. 아울러 다른 회사들의 제품에서 찾아볼 수 없는 '보안성'에 관한 기능

(주) 텔리안 A/V시스템은 설립한지 얼마 안되는 벤처기업으로 세계적인 전자·오디오 업체와 MP3플레이어의 수출계약을 맺고 양산을 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반도체 메모리를 사용해 음악을 저장하기 때문에 부피가 작으면서도 CD수준의 음질을 자랑하는 텔리안 A/V시스템의 MP3플레이어는 다양한 모델, 고성능 음질, 보안성 등을 두루 갖춘 제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월간 20만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양산체제를 갖추고 있는 이 회사는 미국의 오디오박스 및 일본의 나카비치 등과 계약을 맺고 본격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을 갖추고 있다. 아직까지는 보안성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지만, 이미 보안성과 관련된 SDMI(Secure Digital Music Initiative) 규격이 존재하며, 우리나라에서 SDMI에 소속된 회사는 텔리안AV시스템을 포함하여 4군데에 불과하다. 성공비결에 대해 묻자 이사는 “단기간에 세계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기술력과 마케팅의 결합에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세계적 회사에 전화기 등 정보통신기기를 수출하던 텔리안(대표 유홍)의 마케팅을 이용해 제품의 상용화와 세계적인 업체들에 대한 제품 공급의 길을 열었다고 설명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자체적인 양산 체제를 갖추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개발된 제품에 대한 ‘수정화’ 작업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내 1백50여 업체 중에서 실제로 양산에 들어가 제품을 수출하는 회사는 3~4군데에 불과한 실정이다.

월 20만대... 양산 체제 갖춰

이사는 “MP3 플레이어의 개발과 양산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MP3 플레이어를 개발해서 양산할 수 있는 수량은 5만개 정도가 되

어야 하며, 4개월 단위로 짜여지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요구된다. 또한 수정화 작업에 대해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은 제품 개발에 못지 않다. 실제로 텔리안AV시스템은 이미 개발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주식회사 텔리안이라는 회사의 출자를 통해 양산을 위한 신규법인으로 출발했으며, 지난해 3월 설립된 이후부터는 거의 양산을 위한 투자를 계속해 온 셈이다.

지난해 8월부터 MP3플레이어의 양산에 들어간 텔리안AV시스템은 5만대 생산을 시작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생산대수를 월 20만대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앞으로는 내수판매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의 오디오박스(Audiovox)와 올해까지 총30만대를 OEM방식으로 수출하기로 계약하고, 이미 미국 오디오박스에 첫 제품 1만3천여대를 선적했다. 또 일본의 나카미치와도 지난해 11월부터 2만 5천대를 선적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간 10만대 가량을 수출하기로 한데 이어 일본 종합 전자제품 업체와 독일의 그룬디히 등 세계적인 전자·오디오업체와도 수출계약을 맺고, 거래처별 디자인과 제품 사양 협의를 진행 중이다. 수출 모델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1대당 평균 1

백달러선으로 금년 매출액은 최소 1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MP3 플레이어의 시장 규모는 최소 4백만대, 내년에는 8백만대, 2005년에는 3천만대로 연간 10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기존 카세트플레이어와 같은 휴대형 오디오 시장을 대체해 나갈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컴퓨터 음악 압축 파일(MP3)’ 시장을 놓고 전자, 오디오, 인터넷, 음반 업계가 치열한 시장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잇따른 MP3 플레이어의 출시와 함께 인터넷 업체들과 음반회사 등의 전략적 제휴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작년에 국내 최초로 인터넷 업체와 음반 회사가 손잡고 개설한 MP3 내려받기 인터넷 사이트(렛츠뮤직), 무료 MP3 플레이어 배포 행사 등이 이러한 관심과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직원 24명중 20명이 연구원

24명의 직원 중 20명이 연구원인 이 회사는 각각의 구성원들의 개발 스킴이 전체 프로젝트의 진행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책임감이 크고 유대관계가 좋다고 한다. “전 직원이 자신이 개발한 제품이 전 세계인들이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개발에 착수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일을 하고 그 일이 끝나면 시키기를 바라는 분위기는 있을 수 없다”고 설명하는 이사는 “올해에는 더욱 다양한 MP3 플레이어와 웹폰, 이동통신 등을 개발해 사업을 더욱 확장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힌다. ⑤7

장미라 <본지 객원기자>